

# MB 끌어들이던 최시중, 왜 정권 압박용이나, 의도 없는 돌출발언이나



2007년 8월 대선캠프 2007년 8월 18일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시중 삼입교(왼쪽 셋째) 등 측근들이 배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박희태 공동 선대위원장, 최 고문, 김덕룡 공동 선대위원장, 정경근 대변인, 이등관 공보실장. [뉴시스]

왜 'MB'를 끌어들이었을까.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2007년 한국갤럽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는데 당시 대선 여론조사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드는 의문이다. 통상 금품 수수 의혹이 터지면 당사자들은 검찰에선 자백을 할지 언젠 대개 언론에는 부인하게 마련이다. 최 전 위원장은 하지만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건 물론 "대선 여론조사 자금"이라고 용차까지 못 박았다. 정권의 가장 내밀한 문제인 '대선자금'을 거론한 거다.

그는 올 1월 말 측근 비리 의혹으로 공직을 물러난 때까지 4년 가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

최시중, MB 정치입문 때부터 멘토 "대선 여론조사 자금" 사용처 못 박아 이 대통령 주변선 "황당하다" 반응 수사 앞두고 권력심층부 분석도

다. '방송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 중 실세였다. 발언권도 상당했다. MB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온 정치적 영향력이었다.

"행운을 이시장 다 드릴 테니 퐁퐁 가져가쇼." 최 전 위원장이 2005년 필프에서 출신원(골프)에서 처음 친 공이 한 번에 그대로 훌쩍 들어가는 일을 하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하 해 한 말이라고 한다. "출신원 하면 3년 운이 좋다"는 말을 염두에 둔 거다.

최 전 위원장은 정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꿈꾼 사람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보다 먼저다. 이상득 의원은 그와 동향(경북 포항)에 서울대 동기(57학번)로 50여 년 지기(知지)이기도 하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1992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상당역을 했으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서울시장을 거처라는 조언을 한 이도 그다. 2007년 대선 무렵 그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 여권 인사 "치사하게 그런 얘기 하나"

청와대 "자고 나면 사고니..." 당혹

최와대는 23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란 점에서 대선 전의 측근 비리 의혹에 비해 충격이 더 큰 논지였다. 박정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만 했다.

공개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사적으로 "침울하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바늘방석"이라는 반응들을 내놓았다.

청와대 민정라인의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자고 나면 사고니..."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런 소문(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이 많지 않았느냐.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였을 뿐"이란 목소리도 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민정수석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사법시험 23회 동기다.

## 박근혜 "누구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최시중 금품 수수 정치권 반응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대응은 없으나" 질문에는 "잘못한 부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책임질 일은 재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나이(70)에 바랄 게 뭐가 더 있겠느냐"는 말도 했다.

그런 그가 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 주변에선 일단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최 전 위원장이 선선히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까지 거론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하이마트 수사를 하다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인 이경태의 수첩을 발견했고 거기서 최 전 위원장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최 전 위원장 개인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큰데 대선 여론조사를 거론한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노련한 최 전 위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압박 차원이 아니냐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검찰수사를 놓고 권력심층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인사는 "최 전 위원장이 정치자금 공소시효(5년)가 지난 걸 염두에 두고 편하게 시인한 말일 수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로 언급한 '2007년 한국갤럽 회장 시절'은 2007년 5월 이전이다. 그 이후에 그는 갤럽 회장에서 물러나 있었다. 결국 회장 시절 받은 돈은 공소시효 이전이 된다. 일각에선 "용처를 여론조사로 분명히 해 알선수재나 뇌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정태근 의원)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하이마트 수사하다 최시중 포착 당장은 수사범위 확대 어려워 대통령은 기소·소추 대상 제외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재연 관측도

수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동안 '차떼기당'으로 불리는 수모를 겪었다. 열린우리당도 정권 초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인회정 전 대선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최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결국 정상적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자금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대선자금 수사의 재연을 관측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8년 전의 경우 탄탄한 수사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03년 3월 서울지검 형사9부(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SK글로벌 분석회계 수사 과정에서 SK그룹이 대선자금을 썼다는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5개월 동안의 충분한 내



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역사가 남을 만한 수사 결과를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하이마트 국부유출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 등 정권 실세의 개인 비리 차원이어서 당장 수사범위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법률상 불법 자금의 수혜자로 해석이 가능한 이명박 당시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확연히 걸림돌이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나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4년 수사 때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위법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 실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돌발 발언이 나온 직후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최 전 위원장 소환 일정을 잡은 것도 수사 분절에 대한 확대해석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MB캠프 6인회의 멤버였던 최시중 2007년 경선 때 여론조사 총지휘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캠프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승리한 직후 사실상 최고기수인 '6인 회의'의 존재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전횡인 이상득 의원, 2인자이자 근거반장으로 불린 이재오 의원 등과 함께 그도 멤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 경선 직전인 2007년 5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으로 있었다. 1994년 6월 초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관두고 부임한 이래 13년간 말았던 자리였다.

경선 캠프에선 '고문'으로 지냈다. '전공'을 살려 여론조사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차비(自費)'를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힌 적이 있는데,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한 차에에 수백만원 정도 드는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만 해도 수억원 소요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근혜는 당시 그에 대해 잊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갤럽 회장 경력을 두고 "2006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제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막상 한나라당 경선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여론조사는 당 공소 조직으로 넘어갔다. 당시 여론조사 업무를 했던 한 인사는 "대선 때는 당 정비에서 공식적으로 지출했다"며 "이 대통령이 크게 앞서는데 매주 한두 건의 언론사 여론조사 보도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의 역할도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멘토' 쪽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당시 캠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병풍 역할을 했던 본"(박정호)이라고 표현했다. 한 인사는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푸는 스타일이었"고 전했다.

## 아시아 최초 NASA 허블망원경 관측권을 획득한 이재우 교수와 함께

■ 교수초빙 - 지원서 접수기간(4.23(월) ~ 5.15(화))

역사학과(사양사, 과학사) 경제통상학과(국제경제학, 경제통상) 중국통상학과(중국경제/중국경제) 경영학전공(비즈니스(조직, 회계)재무회계, 마케팅, 투자(Investment, MED)생선산업 및 경영정책) 천문우주학과(천문우주 천문학) 화학과(화학 천문학) 환경에너지융합학과(온실가스 처리/포집/저장기술,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식품공학전공(식품안전) 기능성식품학, 식품발효공학(식품안전) 생명공학전공(신경생물학전공) 바이오자원환경전공(신물종, 식물병리, 환경전환) 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 전분야)정보통신 공, 바이오인포메틱스 포함) 컴퓨터공학과(그래픽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디지털콘텐츠학과(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정보보호학과(정보보호 전분야) 해킹 및 크리넥(SM)보안 건축공학전공(건축구조 및 재료, 건축환경공학) 건축(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소나 및 인테리어, 조경) 건설환경공학(수공학, 일반공학) 공간정보학과(공간정보학과 전분야) 에너지자원공학과(에너지공학/환경공학) 국방사관공학과(소나 융합신호처리, 어뢰/잠수함설계, 레저선박/호트) 기계공학전공(원자력공학(에너지공학) 항공우주공학전공(항공기 재료 및 구조역학, Avionics, 추진체(소행트엔진, 로켓엔진) 나노신소재공학부(에너지/전자소재, 나노융합소재) 산업디자인학과(디자인) 커리어/이커리어 부디가 패디자인학과(의류공학 및 패션디자인) 경영전문대학원(대학원, 대학)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jong.ac.kr) 참조 \*문의: 02)3408-4192~4

서울대, KAIST, 고려대에 이어 네번째로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 재인증 획득!

세종이 필요한 시대 - 세종대학교